

일본과자전문학교 한국동창회 결성

양과자 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우리의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구슬도 각각 존재할 때보다 하나의 끈으로 이어질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한다는 뜻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 7월 20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일본과자 전문학교 교우회 한국동창회 결성은 새로운 의미 부여의 계기였다. 이 학교를 거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모교에 대한 애정과 동문수학의 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더 튼튼하게 묶는 확실한 '끈'을 마련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이날 한국동창회 결성식에는 일본과자전문학교는 물론 동교(同校) 출신 모임인 교우회 인사들과 국내 제과업계의 많은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일간 기술 교류 더욱 돈독케 하는 또다른 '끈'의 의미 지녀

한국동창회 결성 행사의 첫 순서에서 무라카미 교우회 회장은 서둘지만 한국어로 인사말을 통해 현재까지의 졸업생 현황과 교우회 활동을 설명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이어 시사하다 일본과자전문학교 부교장은 머지 않아 대만동창회 결성이 있을 것임을 밝혀 이번 한국동창회 결성이 외국 동창회 결성으로는 최초라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측 전·현직 대한제과협회 조승환, 이흥경 회장과 과우학원 김지정 이사장의 축사에서 언급되었듯이 단순히 한국동창회 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또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알려진 대로 일본과자전문학교는 양과자 기술 발전에 일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양과자 협회연합회에서 설립한 교육 기관으로서 대한제과협회에서 태동한 우리의 한국제과고등기술 학교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현재 일본과자전문학교는 3년전부터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와 우호 조약을 맺어 한국 학생이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과 기술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 그동안 적지않은 한국 졸업생을 배출해 냈고 서울국제제빵과자전에도 뛰어난 제품을 찬조 출품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따라서 이번 일본과자전문학교 한국동창회 결성은 단순한 동창회 모임 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양국이 쌓아온 우호와 기술 교류의 바탕을 더욱 두텁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또다른 '끈'이라는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韓日 제과 업계 인사가 참석해 한국동창회 결성을 축하했다.
▲ 동창회 발전과 한일간 기술교류 활성화 의미를 담은 케이크 커팅.

동창회 결성으로 양과자·제빵기술발전 역할기대

이번 한국동창회는 일본과자전문학교의 48번째 교우회 결성으로 졸업생 및 재학생을 포함 48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일본과자전문학교 교우회는 일본내 각 현마다 구성돼 있지만 해외 교우회로서는 첫번째인 셈이다.

따라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타 일본내 교우회 못지 않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한국동창회는 서정용 초대회장을 비롯해 장복용, 이규번 부회장 등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친목 유지에 그치지 않고 연 2차례 정도 본교 교사를 초청해 양과자 기술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또 현재 양과자·화과자과만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자전문학교가 98년에는 제빵과를 신설할 예정이어서 한국동창회가 향후에는 양과자는 물론 제빵 기술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K]